

어린이집 영유아 가정양육을 강력히 권고합니다

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어린이집 등원율 54%... 비수도권 70~90%
「유치원·어린이집 감염 확산... 비상 걸린 ‘돌봄’」

- 7.22. SBS 8시 뉴스

어린이집 집단감염 지속... 남양주, 서울 동작구, 중랑구, 서초구,
연천군, 강릉시 등

- 연합뉴스, SBS, 뉴시스 등



보건복지부장관,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내리는 **후원 명령**은?

**감염병 발생,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
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**고 인정될 경우 내려집니다.

어린이집에서 가능한 **긴급보육**은?

현재의 감염병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
“**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**” 등
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

보호자 여러분, 긴급돌봄을 위한 지자체와
어린이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십시오.
반드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
불가피한 경우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하여 주십시오.

여러분의 협조 없이 어린이집도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